옷을 입고 몸을 가졌다

Get Dressed & Have the Body

글. 김석영 Kim, SeokYoung · 시인

어렸을 때 장롱에 갇힌 적이 있다. 아버지를 피해 도망쳤다가 몇 시간 만에 집으로 들어온 엄마는 무엇보다 내가 보이지 않자 겁부터 났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것은 술 취한 아버지가 드러누워 있는 안방 장롱에서였다. 장롱 문을 열기까지 엄마에게 필요한 건 용기뿐이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아버지의 코고는 소리에 맞춰 발소리가 나지 않게 장롱 앞에 당도했을 때 엄마가 넘어서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아니라 그 앞을 막고 누워 자던 아버지라는 공포였던 것이다. 엄마는 장롱 안에서 숨이 넘어갈 듯 꺽꺽거리는 나를 발견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날의 사건은 기억나지 않지만 엄마의 이야기로 그때의 긴장된 공기와 울음소리를 나는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었다. 몸에 남은 감각 때문인지 기억의 되풀이 때문인지 나에게 장롱은 강박이 되었다.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그 공간은 벗어나고 싶으나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천형처럼 내 몸에 씌워졌다.

어디를 가도 나는 장롱과 함께였다. 자주 경직되는 나에게서 사람들이 얼핏 장롱의 배후를 엿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꽤 자주 한다. 오랫동안 나는 장롱이 주는 뉘앙스에 대해 골몰해왔고 누구보다 장롱에 대해 빈번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역설적으로 나는 장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롱에 몰두했다. 장롱에 나를 가둔 것은 아버지였고 나를 꺼낸 것은 엄마였다. 장롱은 내게 또 다른 자궁이었다. 그러나 나는 장롱으로부터 탄생한 것이 아니라 탈출했다. 장롱이 기필코 탈출해야만 하는 죽음의 공간으로 변이되었다는 점에서, 나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장롱은 그렇게 나를 낳고 나를 건축해냈다. 어려서부터 나는 옷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 장롱 속에 갇혔을 때 우연히 마주했을 옷이 외려 나에게 장롱이라는 특수한 장소를 상기시켜 주었다. 장롱을 통해 나는 옷이라는 상관물로 나아갔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정

체성을 알고 느끼는 경험이다. 자비에 돌란의 영화 『로렌스 애니웨이』(2013)에서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여성의 옷을 입는다. 작중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남녀주인공이 블랙 섬을 걸어갈 때 하늘에서 색색의 옷가지들이 슬로우로 떨어지던 장면이었다. 나는 거기서 현대인의 자기 정체성 상실을 극명히 보여주는 화려한 기호를 보았다. 최근 옷의 트렌드가 젠더리스(genderless)라는 사실은 옷이 개성과 결여를 동시에 드러낸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옷을 보관하는 장롱은 인간을 저마다의 고유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장소다. 각각의 인간에게 걸맞은 옷을 건축하며 그가 하나의 '성'이자 '빌딩'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장롱이라는 공간이 장소로 재탄생하게 되는 통과의례다.

우리가 장롱 속에서 한 벌의 옷을 꺼낼 때, 그것은 가볍거나 무거운 보호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옷은 기호가 아닌 천 쪼가리이자 텅 빈 껍데기일지도 모른다. 장롱이라는 건축물에 인간이 갇혔을 때, 인간은 벌거벗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노출의 미학이 정확히 상실의 지점과 맞닿는다. "나에게 강요된, 어찌할 수 없는 장소"[1]인 몸에, 우리는 옷을 입는다는 행위로 맞선다. 옷을 입으면서 우리는 몸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지만, 또한 몸을 새로 규정하는 위치에 올라선다. 우리는 빈 몸으로 장롱에서 탈출하여 자아를 축조해왔다. 장롱이라는 억압의 공간으로부터 탈출한 인간이 자신의 근원인 장롱에서 옷을 꺼내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자신이 된다.

1) 미셸 푸코, 이상길 옮김,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28면.